

「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72)」 2016년 9월 23일 호

**【웃는 얼굴이 멋진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9월 19일 경로의 날엔, 장수하신 어르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히가시구 사이다이지에 살고 계시는 후지와라 츠야코씨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후지와라씨는 1912년에 태어나 올해 104세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912년은 제2대 사이온지 내각 때로 다이쇼 데모크라시 (1910년부터 1920년까지 걸쳐 일어난 정치.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자유주의적인 운동, 풍조, 사상의 총칭) 에 관련된 사건이 몇 가지나 발생한, 역사교과서에서 배운 바로 그 시대입니다. 또 동시대에는 예술가인 오카모토 타로나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런 긴 역사를 살아온 104세의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시다만, 실제로 만나 보니 정말 연세가 상상이 되지 않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화도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했을 때에는 아들, 손자, 증손자와 함께 계셨으며, 현손인 슈야(생후 9개월)를 무릎 위에 안으시며 대화를 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스모(키세노사토의 팬)의 관전과 NHK의 아침 드라마를 좋아하고, 매일 가족 전원의 세탁물을 정리하는 건강함에 놀랐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특정한 약을 전혀 먹지 않고, 「매일 무엇을 드십니까」하고 여쭙보았더니 「고기를 좋아하지만, 채소도 잘 먹고 있습니다.»라고 활발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슈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즐거움으로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멋지게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가능하다면 저 자신도 이렇게 늙어 가고 싶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만나 뵈신 후지하라 어른신을 비롯하여 현재, 시내에도 100세를 넘은 분들이 370인이나 계시는 장수사회를 맞이했습니다.

경로의 날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고령자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염원합니다.

※ 전 시장 시절 2012년도부터 행정·재정 개혁을 위해 폐지한 「장수 어른 축하 방문」입니다만, 이번에 장수를 축하하는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바람에서 큰 경비를 들이지 않는 형태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